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6. 12.(토)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과장	정윤재(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박성필(044-203-3136)

## 탁구 종목 승강제 대회 개막전 방역현장 점검

- 문체부 제2차관, 대회 관계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6월 12일(토) 오후 3시,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가 주최, 주관하는 승강제 대회\* 개막전 현장(강동구 코리아탁구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 승강제 대회: 리그 운영 결과에 따라 하위 리그 상위팀과 상위 리그 하위팀을 맞바꾸는 체계

최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500여 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7월 4일(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김정배 차관은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 경기장 입장 통제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 참석자 동선 통제, ▲ 시설, 장비에 대한 소독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이어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유남규 부회장 등 대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대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승강제 대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탁구는 생활체육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작년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승강제 대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통합, 생활체육을 통해 전문체육까지 연결해주는 선진형 스포츠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축구 종목에서 시작해 2020년 탁구, 야구, 당구 종목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박성필(☎ 044-203-313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p>
---	--